

도시 지역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된 요인

천경아, 천동환, 조병만*

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,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*

목적 : 도시 지역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된 요인을 구명함으로써 이 지역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부산광역시의 1개 구(區)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5%에 해당하는 612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. 한국판 Mini-Mental State Examination(MMSE)을 이용하여 인지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회 인구학적 변수, 흡연, 음주와 뇌혈관질환 이환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. 설문조사가 가능하였던 387명의 자료 중 372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지기능 장애 정도와 여러 가지 변수간의 연관성을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한국판 MMSE 점수 19점 이하를 인지기능 장애로 정의하여 Cox모형을 이용한 인지기능 장애의 보정 유병률 비를 산출하였다.

결과 : 단변량 분석에서 한국판 MMSE 점수가 19점 이하인 인지기능 장애자의 비율은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(Ptrend=0.001) 여성, 한글해득이 불가능한 경우, 교육 수준이 무학인 경우,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인지기능 장애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(P=0.001) 또한 흡연하지 않는 사람 (P=0.028), 음주하는 사람 (P=0.002) 에서도 유의하게 더 높았다. 다변량 분석에서 인지기능 장애의 보정 유병률 비는 연령증가(5세) 2.79(95%신뢰구간 1.51-5.15), 여성 3.56(0.78-16.21), 한글해득이 가능한 사람 0.24(0.10-0.59), 흡연하는 사람 0.59(0.20-1.74), 음주하는 사람 2.33(1.24-4.37)이었다.

고찰 : 보건분야와 사회부문의 서비스 증대로 인하여 고 연령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. 노인의 정신병리 현상 중 인지기능 장애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, 질병이환 및 사망과 연관성을 가지지만 인지기능 장애의 유병률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어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된 요인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. 본 연구대상자에서는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된 요인이 연령, 한글해득 능력, 음주였다.

HEALTH MANAGEMENT & PROMOTION